

보도시점 2025. 12. 9.(화) 12:00 배포 2025. 12. 9.(화) 08:30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 부가자료로 제공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 반영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주거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매년 7월 공표되는 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에 더하여 다가구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를 부가자료로 9일 공표하였다.

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의 기반(基幹) 통계이며 유일한 전수자료로, 각종 주거복지정책 및 학술연구, 기업경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주택총조사에서는 주택의 요건*인 관습상 소유 및 매매 단위에 따라 다가구 주택을 1호(戶)로 산정하며, 그 결과를 매년 7월 제공하고 있다.

* 주택 요건: 영구(준영구) 건물, 부엌과 한개 이상 방, 독립된 출입구, 소유(매매) 단위

이번에 공표하는 부가자료는 “지역 단위 주거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의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가 필요하다”는 정부부처 및 학계 등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시군구 단위로 최초 제공된다.

* 구분 거처: 하나의 다가구 주택에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된 거주 공간

부가자료에 따르면, '24년 11월 기준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는 2,294만호로 집계되었다.

< 기존 주택수 및 부가자료 작성기준 비교 >

구분	주택수(기존)	주택수(부가자료)
작성기준	- 소유(매매) 단위를 기준으로 산출 (다가구주택은 건물단위(동수))	- 거주 단위를 기준으로 산출 (다가구주택은 구분거처 반영)
주택수(2024년)	- 1,987만호	- 2,294만호(+307만호)
다가구 주택	- 77만호(건물 단위)	- 384만호(구분거처 반영)

이번 부가자료는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군구별 다가구 구분거처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앞으로 매년 현행 주택수 및 부가자료를 병행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가구주택기초조사: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추출틀 구축 등을 위해 전국 모든 거처 대상으로 조사(24.11.)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주택수 부가자료 제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정확한 기본통계 작성이 가능하다”며, “지역별 주거현황 파악 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통계자료 제공 안내 >

- 보도자료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s://mods.go.kr>)에 게시
- 통 계 표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에 수록

붙임. 주택수 부가자료 산정결과 및 산정방법

담당 부서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서영 (042-481-3720)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042-481-3752)



붙임1 주택수 부가자료 산정결과(2024년)

<표1> 시도별 총주택 및 부가자료(2024년)

(단위: 천호)

	총주택(기준) (A)	다가구 주택 (건물 단위)	총주택(부가자료) (B)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 반영)	차이 (B-A)
전 국	19,873	772	22,940	3,839	3,067
수도권	9,285	329	10,720	1,763	1,434
서울	3,170	178	3,908	915	737
부산	1,350	85	1,507	241	157
대구	904	65	1,100	261	196
인천	1,153	22	1,255	125	103
광주	568	29	669	130	101
대전	524	26	649	151	125
울산	412	26	498	112	86
세종	158	1	172	15	14
경기	4,962	129	5,557	723	594
강원	684	24	771	110	87
충북	686	21	815	151	130
충남	948	17	1,084	153	136
전북	774	18	867	112	94
전남	847	15	903	72	56
경북	1,129	38	1,344	253	215
경남	1,342	62	1,546	267	205
제주	263	14	295	47	33

<표2>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수 상위 시군구(2024년)

(단위: 천호)

순위	시군구		총주택 (부가자료)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 반영)	다가구 주택 (건물 단위)
1	서울	관악구	215	98	14
2	서울	광진구	145	61	11
3	경북	구미시	212	59	7
4	대구	달서구	241	58	13
5	서울	종랑구	166	58	13
6	서울	동작구	164	52	8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107	50	13
8	경기	평택시	298	50	8
9	대전	서구	199	50	7
10	서울	영등포구	153	48	9
11	대구	북구	195	47	9
12	서울	동대문구	146	45	9
13	광주	북구	208	44	10
14	서울	강북구	135	43	10
15	서울	성북구	176	41	9
16	경북	경산시	144	40	4
17	경남	진주시	163	39	9
18	서울	구로구	169	39	8
19	대구	수성구	176	38	11
20	충북	청주시 흥덕구	139	37	6

붙임2 주택수 부가자료 산정방법

- (작성목적) 지역별 주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한 주택수가 필요하다는 정부부처 및 학계 등 이용자 수요 반영
- ※ (기존 주택수 산정방법) 주택총조사에서 주택의 요건(관습상 소유 및 매매 단위)에 따라 다가구 주택을 1호(戶)로 집계하여 주택수를 산정하고 있음
- (작성대상) 단독주택(일반단독, 다가구 단독(구분거처수), 영업겸용),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주거용 건물내주택
- (작성방법) 건축물대장, 전기시설명부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다가구 구분거처수를 작성하였고,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확성 제고
- *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추출틀 구축 등을 위해 전국 모든 거처 대상으로 조사('24.11.)
- ※ 행정자료의 한계(가구수 누락, 구조변경, 증·개축 등)를 보완하기 위해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자료를 반영하여 다가구 구분거처수 정확성 제고

< 기존 주택수 및 부가자료 작성기준 비교 >

통계명	주택수(기존)	주택수(부가자료)
활용 자료	· 기준년도 주택총조사 자료	· 기준년도 주택총조사 자료 + 건축물대장, 전기시설(주택용)명부, '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 자료(전수)
특징	· 소유 및 매매 단위 산출방식	· 거주 단위 산출방식
단위	· 공동주택 : 호실단위 · 단독주택 : 소유가 건물 단위인 경우 건물 단위	· 공동주택 : 호실 단위 · 다가구 단독주택 : 호실 단위 ※ 일반단독, 영업겸용 등 단독주택은 건물단위
차이점	· 다가구 단독주택 건물 단위로 집계	· 다가구 단독주택 구분거처 단위로 집계

- (향후계획) 매년 기존 주택수와 부가자료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임